

# 3-2

## [오르비 특강용] 환경과 윤리(수특 8강) - 내용 중심

### 교과서 읽기 모음+확인 문제

#### 1-1. 인간 중심주의 1

##### [미래엔]

인간 중심주의 윤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우선 이분법적 세계관에서 출발한다. 이분법적 세계관에서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바라본다. 이러한 세계관은 인간을 자연에 비해 우월한 존재로 인식한다.

또한 인간 중심주의 윤리는 도구적 자연관을 가지고 있다. 도구적 자연관에 따르면 자연은 그 자체로 가치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과 복지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인간 중심주의 윤리를 강조한 대표적인 사상가는 베이컨과 데카르트이다. 베이컨은 인간에게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과학의 목적이 자연을 정복해 인간의 물질적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인간은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카르트는 인간의 정신은 물질로 환원할 수 없는 존엄한 것이지만 자연은 의식없는 단순한 물질, 즉 하나의 기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는 기계론적 자연관에 근거하여 자연 과학의 목표가 인간을 자연의 주인으로 만드는 데 있다고 보았다.

##### [천재교육]

서양의 고대와 중세에 일부 존재했던 이분법적 전통은 데카르트, 베이컨 등의 철학자를 통해 17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확고해졌다. 즉, 이성을 가진 인간은 자연의 품에서 벗어나 자연을 패체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성은 성숙, 자연은 미숙'과 같은 이분법적 구도는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회에도 적용되었다. 인간-자연, 남성-여성, 이성-감정, 정신-육체, 문명-야만, 진보-미개 등의 이분법적 인식은 철저하게 전자에 우위를 부여하는 인간 중심주의적이고 성차별적인 사고방식으로 이어졌으며, 사실과 가치, 경제와 윤리, 과학과 도덕을 분리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

자연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자연을 기계론적 인과관계로 이해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자연을 생명이 없는 물질적 재료로 인식하는 것이다. 물질세계뿐만 아니라 생명현상까지도 물리학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환원론적 사고는 생명의 가치를 무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원론적 사고로 파악되는 자연은, 있는 그대로 체험되는 자연이 아니라 단순한 인과 법칙으로 재구성한 자연일 뿐이다. 이분법, 기계론, 환원론 등의 사유는 자연의 본래 가치를 배제하였으며, 자연을 지배와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게 하여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되었다.

##### [비상교육 자료] 도구적 자연관

- 아리스토텔레스 :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가죽이나 식량이 기타 용도로 존재하는 것처럼, 야생 동물도 그러하다. 즉 야생 동물은 식량이나 다른 기타의 용도, 즉 의복이나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다.
- 아퀴나스 : 야수를 죽이는 것이 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신의 섭리에 의해 동물은 자연의 과정에서 인간이 사용하도록 운명 지워졌기 때문이다.

11[13 ebs 수완 활용] 다음과 같은 관점을 지닌 사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있는 대로 골라. 세계는 수학적으로 정확한 기계적 패러다임을 갖고 움직이며, 따라서 그 움직임은 사전에 완전한 예측이 가능하다. 세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은 인간이 자신의 이성을 통해 이 세계가 어떤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지를 과학적으로 탐구함으로써 그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다.

- ① 과학 기술을 통해 자연에 대한 지배가 가능한가?
- ② 자연의 모든 현상을 인과 법칙에 의해 설명할 수 있는가?
- ③ 자연을 인격을 지닌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 보아야 하는가?
- ④ 자연의 모든 존재들 안에는 영혼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⑤ 자연의 모든 존재들은 각자의 목적들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1-2. 인간 중심주의 2 -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 Zola Guide 여러분은 그냥 '인간 중심주의'를 제대로 알면 됨. 나머지는 제시문 독해로 확인하면 그만임!

##### [미래엔]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윤리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인식하에 자연을 존중하면서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여전히 인간이 다른 존재보다 본질적으로 더 가치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연도 단순히 도구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는 점에서 강경한 인간 중심주의를 극복한다.

##### [비상교육]

인간 중심주의는 자연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이기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합리적 이익을 추구하는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도 자연을 인간의 욕구 충족 대상으로 삼기는 마찬가지로 비판을 받는다.

이와 달리 자연이 내재적 가치를 거부하지만 본래적 가치를 인정하고 자연 보존을 옹호하는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강점을 지닌다.

첫째,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는 현재 세대가 이기심을 줄이고 자연을 잘 보존해서 미래 세대에게 물려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둘째, 적극적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자연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연에 대한 심미적 인식은 지구 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경외하고, 생명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게 한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진다.

셋째, '감각적 선호'보다는 '성찰적 선호'를 중시한다. 즉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는 이성적으로 숙고된 판단을 중시함으로써, 인간이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다면 자연 친화적인 삶을 영위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인간 중심주의의 관점을 버리지 않고서도 자연 친화적 삶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다.

넷째, 인간이 장기적으로 생존하고 복지를 누리기 위해 생태계가 건강하게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한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자연 파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내재적 가치 : 자연이 인간의 이익 관심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객관적 가치
- 본래적 가치 : 자연 그 자체로는 가치를 가지지 못하지만, 인간이 가치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주관적 가치로서 그 자체가 목적으로 추구되는 가치
- 강경한 인간 중심주의와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 노턴에 따르면, 강경한 인간 중심주의는 자연이 인간의 욕망, 즉 감각적 선호를 만족시킬 때만 가치를 가진다고 보고,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는 감각적 선호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식별하는 성찰적 선호를 만족시킬 때 가치를 가진다고 본다.

☞ Zola Guide 두 용어-내재적 가치vs.본래적 가치-는 문제를 보고 구분할 경우에만 활용하자! 제시문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내재적 가치와 본래적 가치를 구분하지 말자!(이 용어 자체가 학문적으로 정립된 용어가 아님!)

12[15-3교 활용] 같이 긍정할 내용 2개와 을이 긍정할 내용 2개를 <보기>에서 각각 고르시오.(단, 중복되는 보기가 있을 수도 있음)

갑: 인간이 진정으로 영리하다면 자원으로서의 자연을 가능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자연을 파괴하기보다는 환경을 보호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을: 한 세대가 자기 세대만을 위하여 이기적 욕망을 무분별하게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래 세대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은 미래 세대의 생존 근거인 환경을 보호하려고 할 것입니다.

##### <보기>

- 가. 인간에게는 자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 나. 환경 보존을 위해 인류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 다. 자연의 모든 존재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 라. 인간을 위한 자연보호는 환경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 갑-(     )     을-(     )

2. 동물 중심주의

[미래엔]

동물 중심주의 윤리는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동물로 확대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동물 해방론'이고, 다른 하나는 '동물 권리론'이다.

[비상교육]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는 입장이 인간 중심주의라면, 인간 이외의 자연적 존재들도 내재적 가치나 본래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는 입장은 탈인간 중심주의이다. 이는 다시 개체론적 탈인간 중심주의와 전일론적 탈인간 중심주의로 구분될 수 있는데, 동물 중심주의는 전자에 해당한다.

동물 중심주의는 개별 동물들도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벤담의 영향을 받은 싱어는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능력을 이익 관심의 필요조건으로 간주한다. 그는 동물도 인간처럼 고통을 싫어하고 쾌락을 좋아하는 이익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익 관심을 동일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인간과 동물을 똑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동물의 이익 관심이라고 해서 인간의 이익 관심보다 저급한 것으로 차별하는 것은 인종 차별주의와 별반 다름이 없는 종 차별주의를 범하는 것이 된다.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동물의 '복지'를 강조하는 싱어와 달리, 의무론의 입장에서 동물도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성장한 포유동물도 삶의 주체로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냥감이나 놀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레건에 따르면, 정상적인 인간은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그러나 다른 포유동물은 기쁨과 통증을 느끼는 감정적인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희망과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도덕적 무능력자(moral patients)로서의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 **Zola Guide** 레건때문에 논의가 상당히 복잡해진다. 그러나 수능에서는 복잡한 것, 특히 논쟁이 되는 것은 지식형으로 나오지 않는다!

- 이익관심 : 어떤 생명체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 연장하고자 하는 욕구(생명체의 존속과 번성 능력)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토끼는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데 이익 관심이 있으며, 장미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날카로운 가시를 만드는 데 이익 관심이 있다.

[교학사]

잘 알려진 동물 해방론자인 싱어에 의하면 동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종족주의에 의거한 편견이다. 동물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는 것은 동물의 이익을 해아리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그의 고통을 줄여주고 쾌락을 증대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물들도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므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이것이 싱어가 주장하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다. 이 원칙에 의거하여 그는 동물을 이용한 실험과 동물의 대량 사육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싱어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보다 큰 효용성을 위해서라면 이익 계산에서 뒤쳐지는 동물의 희생을 용인하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어, 싱어는 완화된 인간 중심주의자라고 비판받기도 한다.

공리주의에 입각한 싱어와는 달리 레건은 동물 권리론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동물은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욕구와는 관계없이 그 자체로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 동물이 고유한 가치를 가지는 이유는 동물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본래적 가치를 지니는 존재는 다른 것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적 존재로 대우받아야 하므로 동물들은 그 고유한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를 지닌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인간의 동물에 대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레건은 실험, 매매, 사냥, 식용화, 애완동물 등 동물에 대한 행위들을 비윤리적인 행태라고 비판한다. 그가 이러한 행위를 비윤리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동물 복지나 동물의 고통을 고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동물의 본래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레건에 의하면, 동물 실험을 통해 지식이 진보하고 인간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해도 동물들이 지닌 본래적 가치를 결코 훼손해서는 안 된다.

3. 생명 중심주의

[미래엔]

생명 중심주의 윤리는 도덕적 지위를 갖는 기준이 생명이라 보고, 도덕적 고려 범위를 모든 생명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지니므로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명 중심주의 윤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사람은 테일러이다. 그는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본다. 모든 생명체는 의식의 유무에 상관없이 자기 생존, 성장, 발전, 번식이라는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존재이다. 예를 들어 식물은 광합성을 하기 위해 태양을 향하며, 카멜레온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위 환경과 동일하게 피부색을 바꾼다. 테일러에 따르면 모든 생명체는 인간의 필요와 관계없이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본래적으로 더 우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선을 지니는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교학사]

생명 중심주의의 연원은 슈바이처의 생명 외경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의학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의술 활동을 펼친 슈바이처는 생명 존중을 평생의 신념으로 삼았다. 그는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생명 일반에 대한 외경심을 느꼈다.

슈바이처는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고자 애쓴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고귀하게 평가할 수 있는 본래적 가치, 즉 생명 안에 스스로 품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살아 있음을 도덕적 고려의 충분한 이유로 삼게 되면 도덕적 의무와 책임의 범위가 인간과 동물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생명체까지 포괄하게 된다.

생명 사상의 연장에서 생명 중심주의 윤리를 발전시킨 사람은 테일러이다. 그는 우리가 유아나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온전하게 도덕적 행위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되는 것처럼 동·식물과 같은 생명체도 인간의 행동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테일러에 의하면 자연의 모든 생명체는 고유의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에 대한 존중은 정당화할 필요가 없는 궁극적인 도덕적 태도이다. 그는 생명 중심주의를 특징짓는 신념을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인간은 다른 생명체들이 지구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인 것과 동일한 의미로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둘째, 모든 생명체 각각의 생존은 이롭거나 해로운 변화를 포함하여 자신이 처한 물리적 환경에 의해 결정될 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와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셋째, 모든 유기체 각각은 자기 방식대로 자체적으로 좋음을 추구하는 개체이다. 넷째, 인간은 다른 생명체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런데 생명 중심주의에서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각각의 생명체이지 공기나 물, 대지나 하늘 등의 생태적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생명 중심주의자들은 생명체에 해를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기나 물과 같은 무생물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다할 뿐 그 자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

[천재교육]

테일러가 말하는 자연에 대한 존중은 해치지 않을 의무, 개입하지 않을 의무, 성실의 의무, 보상적 정의의 의무를 포함한다. 해치지 않을 의무는 생명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어떤 생명체도 해치지 말라는 것이다. 개입하지 않을 의무는 인간이 생태계에 속하는 개별 유기체의 자유를 간섭하거나 생태계를 조작, 통제, 개조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실의 의무는 인간이 즐거움과 쾌락을 위하여 야생 동물을 사냥하고, 낚시하고, 낚시를 놓는 등의 야생 동물에 대한 기만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상적 정의의 의무는 살아 있는 생명체에 해로움을 준 인간이 이들 생명체의 상태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생태 중심주의

[비상교육]

동물 중심주의와 생명 중심주의가 개체론적 관점이라면, 생태 중심주의는 전일론적 관점이다. 전일론적 관점은 탈인간 중심주의 윤리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무생물, 종, 군집 나아가 생태계 전체로까지 확대한다. 생태 중심주의는 개별 생명체보다는 상호 의존성에 바탕으로 둔 생명 공동체 그 자체에 관심을 갖는다.

[교학사]

레오폴드는 인간을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정의하고 공동체의 범위를 식물과 동물, 토양과 물을 포함하는 대지로 확장한다. 대지의 윤리에서 인간은 공동체의 정복자가 아니라 평범한 한 구성원이다. 인간과 자연을 모두 포괄하는 유기체적 생태 공동체 안에서 개체인 인간에게 전체 공동체의 건강한 유지를 위해 도덕적 책임과 의무가 부과된다.

환경 문제의 근본 원인이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 있다고 믿는 생태 중심주의는 자연의 고유한 가치와 동물에 대한 도덕적 권리를 주장한다. 생태 중심주의자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첫째, 인간이나 자연의 다른 생명체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지구 환경의 구성원일 뿐이다. 둘째, 인간은 전체 생태계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전체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자연 안의 모든 생명은 그 권리를 평등하게 나누어 갖고 있으며 자연은 각 부분의 상호 작용과 교환에 의해 평형을 이루어야 한다. 셋째, 전체 생태계는 다양하며 다양성은 생태계의 혼란이 아니라 복잡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넷째, 자연의 모든 생명은 각각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자신에게 가장 바람직한 것을 추구한다.

[참고, 비상교육] 환경 윤리학의 스펙트럼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강경	온건			
도덕적 고려의 준거	이성, 인간의 이익	인간의 합리적 이익	의식	쾌고 감수 능력	살고자 하는 의지, 목표 지향성
도덕적 고려의 범위	인간		인간, 포유 동물	인간, 쾌고 감각을 지닌 모든 동물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 종, 생태계

환경 윤리 사상이 모음(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ebs, 연관 자료)

☛ Zola Guide 사상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들이 '왜(논거, 이유)' 인간/동물/생명/생태 중심주의에 속하는지 독해 point를 확인할 것!

(1-1)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존재하고,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아리스토텔레스

(1-2) 사물의 질서는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을 위해 존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식물은 모두 동물을 위해 존재하고, 동물은 모두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신의 섭리에 따라 동물은 자연의 과정에서 인간이 사용하도록 운명 지어졌다. (그러나) 인간이 동물에게 동정 어린 감정을 나타낸다면, 그는 그만큼 더 동료 인간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다. -아퀴나스("신학대전")

(1-3) 우리 학술원의 목적은 사물의 숨겨진 원인과 작용을 탐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인간 활동의 영역을 넓히며 인간의 목적에 맞게 사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베이컨, "뉴 아틀란티스"

(1-4-1) 신체는 본질적으로 언제나 분할될 수 있지만 정신은 어떤 경우에도 분할될 수 없다는 점에서 신체와 정신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실제로 정신, 즉 사유하는 실체로서의 나 자신을 고찰할 때 나는 내 안에서 어떤 부분도 구분할 수 없으며, 나 자신을 전체적이고 통일적인 대상으로 인식한다. 정신 전체가 몸 전체와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나의 발이나 팔 또는 다른 신체 부분이 절단될 때에도 나의 정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나는 인식한다. -데카르트

(1-4-2) 이성적이지 않은 존재는 고통을 경험할 수 없다. 물질적 육체와 비물질적 영혼의 혼합체인 인간과 달리, 동물은 의식이 없는 기계일 뿐이다. 동물도 감각 능력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고통을 느낀다고 볼 수는 없다. 인간이 아닌 존재의 '감각'이란 마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경험도 가능하지 않다. -데카르트

(1-4-3)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절대로 거짓된 것으로서 버리고 이렇게 한 후에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내 신념 속에 남지 않을지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 (중략) ... 그러나 금방 그 뒤에 그렇게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동안도,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반드시 어떤 무엇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이 진리는 아주 확고하고 확실하여, 회의론자가 제아무리 터무니없는 상정을 모두 합치더라도 이 것을 흔들여 놓을 수 없음을 주목하고서, 나는 주저 없이 이것을 내가 찾고 있던 철학의 제 1 원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데카르트

(1-5) 인간은 기계다. 인간의 행동, 언어, 사고, 감정, 습관, 신념 등은 모두 외적인 영향과 인상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인간은 사실상 입구와 출구, 톱니바퀴와 관, 원자 등이 결합한 복잡한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무엇 하나 발견할 수 없고 발명할 수도 없다. 모든 것은 그저 일어날 뿐이다. 인간은 기계이며, 이 세계는 다양하게 변형된 단 하나의 근본 재료만이 존재한다. - 라메트리(La Mettrie, J. O.)

**[교학사 교과서] 라메트리의 인간 기계론의 관점을 인간에게 적용할 때 생기는 부작용은 무엇일까?**

로크와 데카르트의 영향을 받은 라메트리는 1747년 데카르트의 "동물 기계론"을 인간에게 적용하여 "인간 기계론"을 간행한다. 이 책에서 그는 동물은 인간의 영역에 가깝기보다는 정교한 장치로 조작되는 일종의 자동 기계에 가깝다고 본 데카르트의 기계론을 이어받는다. 라메트리는 인간도 동물과 같이 육체와 고도로 정교한 본능만을 가졌을 뿐 동물이 갖지 못한 정신이라는 실체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적 실체란 실은 뇌의 분비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물질적 기능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그는 인간이란 스스로 태업을 감거나 푸는 한 대의 기계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1-6)

자연은 비록 무생물이지만 아름답다는 것을 고려할 때,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자 하는 성향은 인간의 자신에 대한 의무를 거스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감정은 도덕 자체는 아닐지라도 도덕성을 매우 증진하며, 적어도 도덕성에 대한 길을 예비하는 감성의 기분이야 할 수 있는데, 자연을 파괴하고자 하는 성향은 그러한 감정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감수성의 성향이란 심지어는 사용 가치에 대한 어떤 이익 관심과도 무관할지라도 아름다운 수정의 형상, 묘사하기 어려운 식물들의 아름다움과 같은 어떤 것을 사랑하는 성향을 말한다.

동물은 비록 이성 없을지라도 살아 있는 피조물임을 고려할 때, 동물을 폭력적으로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를 훨씬 더 심각하게 거스르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것을 삼가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인간의 고통이라는 공유된 감정을 무디게 하며, 사람 간의 관계의 도덕성에 참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자연적인 소질을 약화시키고 점차 그 소질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아픔 없이 즉각적으로 동물을 줄일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동물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일을 시키도록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단순한 탐구를 위해서 신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실험은 이러한 실험이 없이도 정해진 목적을 달성될 수 있다면 금지되어야 한다. 마치 말이나 개가 집안의 한 식구인 것처럼 나이 든 말이나 개의 오랜 노고에 대한 감사는 이들 동물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 -칸트, “윤리 형이상학”(천재교육 교과서)

(1-7) 동물에게 권리가 부여된다고 할 경우 동물이 자기의 도덕적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지식도 가질 수 없다. 동물은 권리를 행사할 만한 아무런 능력도 지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맥클로스키(McCloskey, H. J.), “환경 윤리와 환경 정책”(교학사 교과서)

(1-8) 기독교인 공리주의적 서양의 전통적인 도덕적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항상 그들의 이웃들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쳐왔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폐기물을 바다나 대기 중에 버리는 일, 생태계의 파괴, 아이를 많이 낳는 일, 자원의 고갈 등이 동료는 물론이고 현재와 미래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정도에서 전통적인 도덕은 다른 어떤 것의 보충 없이도 우리의 생태적 관점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다. -패스모어(데자르댕, “환경윤리(제5판)” 재인용, ebs 재인용)

(2-1-1) 싱어의 동물 중심주의 1(“동물해방”, 15 ebs 수록 재인용)

\* 만약 한 존재가 고통이나 행복이나 즐거움을 겪을 수 없다면, 고려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것이 타자의 이익을 고려할 때, '쾌고 감수 능력'이라는 기준이 유일하게 옹호되는 이유이다.

\*\* 쾌고 감수 능력이 이익관심(interest)을 갖는 전제 조건이 된다. 그것이야말로 누군가 이익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 만족되어야 할 조건이다. 어린이가 길가의 돌맹이를 발로 찼다고 해서 돌맹이의 이익관심이 손상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넌센스이다. 돌맹이는 고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이익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어떤 존재가 이익관심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만 아니라 충분조건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쥐는 발에 차이 없음을 이익관심을 갖는다. 발에 차인다면 쥐는 고통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 Zola Guide Queen Banana의 추종 세력들은 제시문을 잘 보고 자기 반성해야 함!

\*\*\* 평등의 원리는 그 존재가 어떤 특성을 갖건 그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동일한 고통과 동등하게—대략적이나마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낄 수 없거나 즐거움이나 행복을 누릴 수 없다면, 거기에서 고려해야 할 바는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쾌고 감수 능력(limit of sentience, 비록 정확한 약어는 아니지만 고통 그리고/또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간략하게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다)은 다른 존재들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우리가 옹호할 수 있는 유일한 경계가 되는 것이다. 지능이나 합리성 등과 같은 다른 특징으로 경계를 나눈다는 것은 임의적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이들이 기준이 될 수 있다면 예컨대 피부색과 같은 다른 특징을 경계 기준으로 채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 평등이라는 기본 원리는 평등한 또는 동일한 처우(treatment)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한 원리는 단지 평등하게 배려하길 요구할 따름이다. 그리고 서로 다른 존재들을 평등하게 배려한다는 것은 그들을 서로 다르게 처우하며, 그들이 서로 다른 권리를 갖는다는 사실을 의미할 것이다.

(2-2-2) 싱어의 동물 중심주의(“실천 윤리학”, 16 ebs 수록 재인용)

산업 사회에서 인간이 동물의 고기를 음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윤리적으로 생각해 보려 한다면, 그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인간의 이익과 먹여지는 동물의 생명과 복지가 정말 균형을 이루는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작은 이익 때문에 큰 이익을 희생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먹게 될 동물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죽었는지 알기 어려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결론은 우리를 채식주의자들의 생활 방식에 가까운 방식을 취하도록 한다.

☞ Zola Guide 싱어는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밀줄 친 부분이 상식적인(실천 가능한) 제한 조건일 것이다. 환경 윤리를 자주 '극단화'시키지 마라!! 우리는 어쨌든 실천 '가능한' 윤리를 배운다!!!

(2-2) 레건의 동물 권리론(“동물의 권리”, 16 ebs 수록 재인용)

믿음과 욕구를 갖고, 지각과 기억을 하고, 그들 자신의 미래를 포함하여 미래에 대한 감각을 갖고, 즐거움과 고통을 느끼는 정서적 생활을 하고, 선택적 및 복지적 이해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시간상의 변화에도 심리적·물리적 동일성을 확보하고, 그들이 다른 존재에게 유용하다는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독립해서 그리고 그들이 어떤 다른 존재의 이익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독립해서 그들의 경험적 삶이 자신에게 이롭거나 해롭다는 의미에서 개별적인 복지를 갖는다면, 그 개체들은 삶의 주체(subject of a life)이다.

(3-1-1) [교학사] 슈바이처, “나의 생애와 사상”

생각하는 존재인 인간은 스스로에게 주는 생명에 대한 동일한 외경을 살려고 애쓰는 모든 존재에게 주어야 하는 압박감을 느낀다. 인간은 존재의 생명을 경험한다. 그는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촉진하며,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생명에게 고귀한 가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을 좋은 것으로 수용한다. 이것은 도덕의 절대적이면서 근본적인 원리이다. -

(3-1-2) [천재교육, 15 개정] 슈바이처, “문화와 윤리”

\* 인간은 자기를 도와주는 모든 생명을 도와줄 필요성을 존중하고, 살아 있는 어떤 것에게도 해를 끼치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에만 비로소 진정으로 윤리적이다. 인간은 이 생명 혹은 저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서 동정을 받는지에 대하여 묻지 않으며, 또한 그것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느낄 수 있는지도 묻지 않는다.

\*\* 수많은 방식으로 나의 존재는 다른 생명과 갈등에 빠진다. 나는 생명을 죽이고 해칠 수밖에 없다. 내가 외딴 오솔길을 걸을 때, 내 발은 그 길에 사는 작은 생명체를 죽이거나 고통스럽게 한다. 나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내 존재를 해치는 존재로부터 나를 지킬 수밖에 없다. 나는 동물과 식물을 죽임으로써 나의 영양을 섭취한다.

\*\*\* 자기 들판에서 소에게 줄 건초를 만들기 위하여 수많은 풀을 뜯은 농부라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무 생각 없이 길가에 핀 꽃을 꺾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꽃을 꺾음으로써 그는 불가피하지 않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생명에게 그릇된 짓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3-2-1) 테일러의 생명 중심주의(“자연에 대한 존중”, 17 ebs 수록 재인용)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그것의 외적 활동뿐만 아니라 내적 작용이 목적 지향적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자신의 종을 재생산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게 하는 생명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해 주는 향상적인 경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생명체가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이 되게끔 하는 것은 자신의 선을 실현하도록 방향 지워진 유기체의 작용이 갖는 일관성과 통일성이다.

(3-2-2) [16 ebs 수록] 테일러의 기본 관점과 자연 존중의 네 가지 의무

◎ 기본 관점

- ①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함께 지구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원이다.
- ② 지구의 자연적 생태 체계들은 긴밀하게 연결된 복합적인 네트워크(연계망)이다.
- ③ 모든 유기체는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고유한 개체라는 점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 ④ 인간은 본질에서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지 않다.

◎ 자연 존중의 네 가지 의무

- ① 악행 금지 :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어떤 생명체도 해치지 말아야 함
- ② 불간섭 : 개별 유기체의 자유를 간섭하거나 생태계를 조작, 통제, 개조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함
- ③ 성실 : 인간이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야생 동물을 사냥, 낚시하거나 덫을 놓는 등의 기만 행위를 금지해야 함
- ④ 보상적 정의 : 인간이 다른 생명체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 마땅히 피해를 보상해야 함
  - ☞ Zola Guide 테일러 조심할 것. 생태 중심주의와 혼란의 여지가 있음. 아울러 아리스토텔레스(인간 중심주의)의 목적론과도 비교됨. 역으로 생태 중심주의도 테일러로 오해될 여지가 있음.
  - ☞ Zola Guide ‘테일러의 생명 중심주의의 개념론’ 개념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은 외울 필요가 없음.

(4-1) 레오폴드의 생태 중심주의

\* 대지 윤리는 알기 쉽게 말하자면, 공동체의 범위를 넓혀 흙, 물, 식물, 동물, 곤 집합적으로 대지를 포함한다.

\* 대지 윤리는 우리 호모 사피엔스라는 존재를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로부터 그 구성원으로 변화시킨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인류는 동료 구성원들과 전체 공동체 대해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

\* 어떤 것은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integrity), 안정성(stability), 아름다움(beaty)을 보존하는 경향에 따라 옳다.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다면 그르다. -레오폴드, “샌드 카운티의 일년”

**[15 ebs 수록] 레오폴드는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대지(大地)로 확대한다. 그에게 있어서 대지는 인간을 비롯한 자연의 모든 존재들이 서로 그물망처럼 얽혀 있는 땅을 터전으로 하는 생명 공동체이다. 그는 생태계 전체를 하나의 도덕적 공동체로 보아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4-2) [심층 생태주의의 주요 원리(네스와 세션스)](환경윤리, 데자르맹)

1. 인간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번성은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 생명체의 가치는 협의의 인간의 목적에서 나오는 유용성과 무관하다.
2. 생명의 풍부함과 다양성은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인간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삶이 번성하는 데 이바지한다.
3. 인간은 없어서는 안 될 본질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명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축소시킬 권리가 없다.
4. 현재 자연계에 대한 인간의 간섭은 과도하며, 상황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5. 인간의 삶과 문화가 번성하려면 인구가 근본적으로 줄어야 한다. 자연계의 번영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6. 보다 나은 삶의 조건을 조성하려면 정치적 변혁이 필요하다. 정치적 변혁을 통해 경제, 기술, 이데올로기의 기본 구조를 바꿀 수 있다.
7. 이데올로기의 변화는 생활수준의 향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이 갖는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다. 큰 것과 위대한 것의 차이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어야 한다.
8. 이러한 점들을 인식하는 사람은 필요한 변화를 위해 각자에게 요구되는 행동을 할 의무가 있다.
  - ☞ Zola Guide 레오폴드랑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생명 중심주의와 구분할 수 있어야 진짜 실력이다!

[참고 자료 for 오르비언] 생명 공동체에 대한 개념적 분석(윤혜진, 철학담구 28집)

☛ Zola Guide '생명 공동체' 관련한 테일러(개체론)와 레오폴드(+심층 생태주의, 모두 전체론)의 차이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일 것 같네요. 일부 표현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고려하여 '개체군'이라는 개념어는 삭제하였습니다(Zola가 임의적으로 추가한 부분은 없습니다.)

본 논문에서 ... 생명 공동체가 그 속에 포함된 개체들의 총합에 지나지 않는다는 개체론과 생명 공동체를 개체들의 총합 이상이라고 보는 전체론을 철학적 차원에서 분석할 것이다. ... (중략)...

**개체론적 관점에서는** ... 단지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생명체만을 고려한다. 따라서 개별 생명체의 이익과 욕구 같은 독자성이 생태학적 이해를 결정하는 최우선적 방책이 된다. 개별 생명체에게 가장 중요한 특성은 개체성과 특이성인데, 이러한 특성에 따라 개별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와 독립된 존재로 인식된다. 이런 까닭에, 생명 공동체 개념을 설명하면서, 개별 생명체가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하나의 전체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전체론적 범주를 언급하지 않고 단지 생명 공동체가 개별 생명체의 단순한 집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면 개체론의 입장에 서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론적 관점에 서면**, 개별 생명체의 이익이 아닌 생명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고려된다. 그리고 그에 따라 환경윤리 차원의 도덕적 우선성을 결정하는 것 역시 생명 공동체 전체의 이익인데, 이것은 언제나 개별 생명체의 이익에 선행하는 것이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개별 생명체의 이익과 필요에 관심을 가질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이익은 흔히 생명 공동체의 필요에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전체론적 관점에서 보면, 생명 공동체는 ... 전체적으로 안정 상태에 이르는 점에 관한 생태학적 특성을 기술한 것이다. 이러한 (항상성 이외에도-안정상태를 의미함(Zola 주)) 종의 안정성, 혼돈으로부터의 회복 능력과 같은 것들은 전체론적 관점에서만 설명할 수 있는 특성들이다.

이[확인] 18년 3월 교육청

12.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평등의 원리는 어떤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고통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낄 수 없다면 고려해야 할 바는 없다.</p> <p>을: 무생물일지라도 아름다운 것을 파괴하는 행위는 인간이 지닌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위반되며, 도덕성을 촉진하는 자연적 감정을 약화시킨다.</p> <p>병: 생명체를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선을 실현하도록 방향 지워진 유기체의 작용이 갖는 일관성과 통일성이다.</p>
(나)	<p style="text-align: right;">&lt;범례&gt; 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병만의 입장 D: 갑, 을, 병의 공통 입장</p>

☛ Zola Guide 동그랗게 표시된 부분만 봐도 답이 나오! 대표적인 banana 문제임!!

< 보 기 >

ㄱ. A: 인간과 동물이 선호하는 이익 관심의 대상은 동일하다.  
 ㄴ. B: 이성적 존재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ㄷ. C: 모든 생명체는 의식 유무와 상관없이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ㄹ. D: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를 잔혹하게 다루는 행위는 잘못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zola amazing 정답!!

- 1) 1, 2. ☛ Zola Guide ③은 무조건 오답. 수업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  
 2) 갑-ㄱ, ㄴ, 을-ㄱ, ㄴ ☛ Zola Guide 갑과 을 모두 (온건한) 인간중심주의임. '을'을 요나스로 착각하는 Banana들이 많음!  
 3) 3 ☛ Zola Guide 고3 정답률이 50%라네요. 고4들예겐 다행입니다.